

담양, 고향사랑기부제 ‘순항’

8일간 81명 기부... 고액 기부자도 꾸준

올해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담양군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은 고향 경제 살리고 특산물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담양군은 현재 쌀, 한우, 딱갈비 등 14개 품목 18개 업체의 담례품을 선정해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담례 품목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담양군의 담례 품목으로는 △쌀

△한우 △딱갈비 △전통주 △한과 △쌀엿 △장류 △죽순 △방울토마토 △산인머스켓 △블루베리 △단감 △담양사랑상품권 △관광·문화상품이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및 담례품 신청은 ‘고향사랑을 누리집’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농협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함평 ‘스마트농업 분야 지원사업’ 접수

소형농기계 구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 대상

함평군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2023년 스마트농업 분야 지원사업’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함평군은 9일 “소형농기계 구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원예작물용 관정,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에 1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특색작목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명품 속 생산시설과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함평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이다. 단, 사업별로 명시된 신청자격과 필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관련 평가표에 의한 현장 확인과 함평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3월중 최종 선정된다. /함평=김홍희 기자

화순,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화순군은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과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농업용 폐비닐 처리 문제와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과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는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면서 토양을 보호하고 인건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농자재이다.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는 앞서 재배한 작물을 거두어들인 뒤 새 작물 재배를 위해 폐기물을 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봄·가을 농번기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화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며, 군은 농협과 협력해 화순군 전체 72만 m² 규모의 농지에 지원할 계획이다. 확대된 지원 자재는 ▲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이다.

지원한도는 ▲농지 m²당 170원 이하 ▲멀칭필름은 최대 3롤 ▲멀칭종이·액상멀칭제 3천m²(n롤, n롤 L) 이내이다. 지원비율은 군부담 60%, 농협 10%, 자부담 30%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자격을 갖춘 후 조합원으로 가입된 농협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성, 인구 ‘5만 회복’ 청신호 켜졌다

첨단3지구 3820가구 건립 확정... 6월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추후 A8블록도 건립...입주 완료시 인구 9500여명 유입 전망

장성군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통해 일시에 인구 5만명 선 회복 기회를 맞게 됐다.

장성군은 광주광역시와 접경 지역인 첨단3지구 A1·A2·A3 블록에 아파트 3820가구 건립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면 9600여명의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4만3146명에 머물던 장성군 인구는 5만2000명 대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 공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장성군 진원·남면과 광주 비아동 일원에 인공지능, 첨단의료 등 미래 지향적 연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성군 진원·남면이 포함된 광주첨단3지구 내 A8블록 아파트단지 조감도.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열원 속에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유치·설립도 첨단3지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3지구

는 개발부지 361만6855m²(109만평)로 근무 인력 4만5000명, 거주 인구 1만80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신규 주택 공급도 대규모로 이뤄진

다. 공동주택 7440가구에 단독주택은 3387가구에 이른다.

이 중 사업 대상지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70%가 장성군 행정구역에 속한다. 진원면 산동리, 학림리를 비롯해 남면 삼태리, 월정리는 첨단3지구 개발의 주무대이다.

6월에 착공하는 아파트는 A1·A2 블록으로 3371가구 규모로 8427명이 장성군으로 유입된다. 추후 A8블록 4497가구까지 건립되면 총 3820가구, 9500여 명이 장성군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민선8기 장성군 공약인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을 비롯해, 미래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까지 실현되면 진원·남면 일대에 큰 폭의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첨단3지구를 품은 진원·남면은 장성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사업이 추진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대규모 공동주택 착공이 인구 유입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나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 첫 토론회 ‘의회에 바란다’

올해 토론회 10회 개최... 토론회서 ‘시민과의 소통강화’



나주시의회가 의정 운영 과정에 사상 처음으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의무 토론회’ 개최를 조례로 제정한 가운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시의회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시의회 토론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9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나주시청에서 ‘나주시의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계획한 10차례 토론회 중 첫 순서로 나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의 기초발표에 이어 이길선 전 나주시의회 의장, 채선 청소노동상담사, 나주시사랑시민회 이천중 이사,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0여명의 시민들도 토론회에 함께 했다.

의정토론회 좌장인 나주시의회 김정숙 의원은 “이번 의정토론회는 2023년 첫 토론회로 나주시의회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위한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초발표를 한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의원은 공인으로서 정치적 입장보다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고 지역 내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발표자인 이천중 나주시사랑시민회 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나주시의회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주시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나주시의회 의장은 “올해 토론회를 10차례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해 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정례회 기간 전인 11월에는 연중 성과를 종합한 ‘경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토론회 종료 이후 긴급임시회를 열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 사회과(역사 포함)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냈다.

시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 역사 지우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촉구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전남도 옥외광고업무평가 영광 ‘우수상’ 수상 영예

영광군이 ‘2022년 전남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군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불법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무 역량,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책 추진 등 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지자체와 유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영광군은 그동안 올바른 광고문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광군이 추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DB 구축),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군 최초 우수상 수상은 옥외광고에 대한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옥외광고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